

2018 시군구공무원 미국 글로벌 정책리서치 보고서

- 미국(뉴욕, 보스턴, 뉴원저시)



2018. 4

목 포 시
[일 자리 정책 과]

미국 글로벌 정책리서치 보고서

I. 연수개요 및 세부일정

가. 연수개요

- 연수명 : 2018 시군구공무원 글로벌 정책리서치 미국연수
- 목 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국제화 감각과 소양 배양
및 우수정책 사례 전파를 위하여 미국 동부 도시의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분야 정책리서치 실시
- 기 간 : 2018. 4. 18. ~ 2018. 4. 27.(8박10일)
- 지 역 : 미 동부 3개 도시(뉴욕, 보스톤, 뉴원저시)
- 주 제 :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우수사례 정책 연수
 - 미국의 문화와 예술을 토대로 성공한 지방행정 우수사례 중
도시재생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연수를 실시

뉴욕시 (4.19.~22.)	· 하이라인 기관 방문 및 현장답사 · 공공미술과 도시재생에 관한 강연 · 로우라인 설명 · 브루클린 및 윌리엄스버그 도시재생사례 연구
보스톤시 (4.23.~24.)	· 해군기지 도시재생사례 현장방문 · 보스톤 도시재개발청 기관 방문 및 정책세미나
뉴원저시 (4.25)	· 스톤 킹 아트 센터 방문 및 워크숍

- 연수단 현황 : 21명
 - 연수자 : 16명(시군구 공무원)
 - 인솔자 : 2명(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본부 직원)
 - 안내자 : 3명(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 직원)

※ 연수단 세부현황

연번	지자체명	부서명	직급	성명
1	서울 종○구	주○과	토목○급	한○희
2	부산 ○구	기획○○실	행정○급	정○윤
3	광주 ○구	도시○○과	시설○급	양○철
4	경기 남○시	문화○○과	행정○급	이○태
5	경기 용○시	자치○○과	행정○급	최○범
6	경기 화○시	자치○○과	행정○급	하○아
7	경기 의○시	자치○○과	행정○급	전○애
8	강원 태○시	경제사업○○단	행정○급	김○동
9	충북 제○시	자치○○과	행정○급	이○봉
10	충남 보○시	문화○○실	행정○급	여○현
11	전북 군○시	문화○○과	행정○급	황○배
12	전남 목○시	일자리○○과	행정○급	김○용
13	전남 장○군	행정○○과	행정○급	유○선
14	전남 화○군	도○과	시설○급	김○채
15	경북 안○시	행정○○실	행정○급	권○향
16	경북 영○군	총○과	행정○급	김○옥
17	대한민국 시도지사○○○	교류○○부	행정○급	장○애
18	〃	홍○부	일반○급	위○운
19	〃	미국○○소	행정○급	조○갑
20	〃	미국○○소	세무○급	예○미
21	〃	미국○○소	전문○원	함○지

나. 세부일정

일정	도시	시 간	세 부 일 정
4.18(수) -1일차-	이 동	19:30~21:00 (KE085) 숙소이동	인천공항 → 뉴욕 JFK 공항(4.18(수) 오후 9시 도착) → 숙소이동
4.19(목) -2일차-	뉴 욕	10:00~12:00 14:00~17:00	〈현장방문1〉 도시재생의 성공작 하이라인 탐방 〈기관방문1〉 Friends of Highline 기관 방문
4.20(금) -3일차-	뉴 욕	10:00~12:00 14:00~17:00	〈워크숍1〉 공공미술과 도시재생의 접목 강사 : 고진영 (콜롬비아 미술교육 박사과정) 〈기관방문2〉 로우라인.org 기관 방문
4.21(토) -4일차-	뉴 욕	10:00~12:00 14:00~17:00	〈워크숍2〉 KANA(뉴욕 예술인 협회)와 함께하는 워크숍 / 강사: KANA 디렉터 (월리엄스버그 지역의 도시재생) 〈문화탐방1〉 브루클린 지역 문화 탐방(DUMBO)
4.22(일) -5일차-	뉴 욕 보스톤	10:00~12:00 14:00~17:00 17:00~20:00	〈문화탐방2〉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방문 〈문화탐방3〉 시민과의 문화소통장소 뉴욕현대미술관 (MOMA) ○ 이동: 뉴욕→보스톤
4.23(월) -6일차-	보스톤	10:00~16:00	〈현장방문2〉 보스톤 도시개발 현장방문 및 사례탐구 (BPDA 정책세미나(24일) 연관 현장 방문)
4.24(화) -7일차-	보스톤	10:00~16:00	〈세미나〉 BPDA(Boston Planning & Development Agency) 방문 및 정책세미나 진행
4.25(수) -8일차-	보스톤 뉴원저시	09:00~12:30 14:00~17:00 19:00~21:00	○ 이동: 보스톤→뉴원저시 〈워크숍3〉 Storm King Art Center 방문 연수단 간담회
4.26(목) -9일차-	이동	10:00~12:00 14:00~17:20 (KE082)	○ 이동: 숙소 → 뉴욕 JFK 공항 이동 JFK공항 → 인천공항 (4.27(금) 오후 5시20분 도착)

II. 연수세부 계획

① 뉴욕시 하이라인 현장 방문

○ 일시 : 2018. 4. 19(목), 10:00~12:00

○ 위치 : 맨하탄 남서쪽 Gansevoort Street
부터 북쪽으로 34th Street까지

○ 목적 : 기관방문 전 현장 견학으로
연찬내용 사전 숙지



〈 일반현황 〉

- 길이 : 2.33km² (직선형 공원)
- 착공일 : 2006년 / 최초 개장일 : 2009년 6월 9일
 - 2009년 1구역 개장을 시작, 2구역(2011년 개장), 3구역(2014년 개장)이 차례로 공중에 개방되었고, 2018년에 허드슨 야드 재개발지역 부근에 새로운 구역 개장을 위해 공사 중임.
- 방문객 수 : 약 760만명(2015년 추산)

〈 하이라인 개요 〉

- 이 High Line 정원은 20년 넘게 버려져 위험한 흉물이 된 화물고가 철도를 공원형태의 현대적인 시민휴식 공간으로 바꿔낸 도시 재활용의 아주 모범 적인 사례임.
철거비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용도 폐기된 역사적인 구조물을 철거하기보다는 역사를 보존하면서 재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과정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과 일반시민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http://www.thehighline.org/visit>

② 뉴욕시 Friends of Highline 기관 방문

- 일시 : 2018. 4. 19(목), 14:00~17:00
- 위치 : 820 Washington St, New York, NY 10014
- 목적 : 하이라인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를 방문하여 하이라인 역사 및 운영, 관리, 기금 마련 등의 정보수집 및 질의응답을 통한 연찬

〈 뉴욕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 개요 〉

- Friends of High Line에 의하면 High Line 프로젝트가 도심 내에서 새로운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조되는 가치가 고가철도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더욱 크다는 것을 적극 홍보 High Line 철거를 주장하는 지주들과 보존론자 사이의 팽팽한 대립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었으며 결국 2002년 3월 보존론자들이 승소함에 따라 비로소 뉴욕 High Line park이 탄생하게 되었음.
- 하이라인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로 기부금 모금,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 공간 대여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이라인 운영예산의 98%를 책임지고 있음.
- 하이라인은 뉴욕시 소유의 공공 공원이지만 Friends Of The High Line은 시공원국과의 제휴로 하이라인 관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적으로 담당함
- 하이라인 1,2구역 건설을 위해 15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고 3구역 건설비용으로 사용된 약 350만 달러의 예산을 뉴욕시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모금함



③ 공공미술과 도시재생에 관한 강연 및 토론

- 일시 : 2018. 4. 20(금), 10:00~12:00
- 위치 : 뉴욕총영사관 8층 회의실
- 목적 : 공공미술이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학습하고
예술을 도시재생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

가. < 강사 약력 >

- **고진영(Jinyoung Koh)** : 현재 뉴욕에서 예술작업과 대학강의를 병행하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학사 졸업, 칼아츠에서 사진과 미디어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2 컬럼비아 대학교 마이어스재단 과 2010 필라델피아 미술관 포트폴리오 대상 선정 되어 수상금 수여, 전시 및 영구소장되었으며 아일랜드 국립대학 연계 레지던시 작가로 참여하였다. 그의 작업은 미국의 여러 도시를 포함해 프랑스, 아일랜드, 호주 등에서 전시되었고 국내에서는 아트선재센터, 일민미술관, 토탈미술관, 영은미술관, 하이트 컬렉션 등의 전시에 참여한바 있음.

< 강의 개요 >

- **도시재생에서의 동시대예술(Contemporary Art)의 역할** : 도시재생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단순한 소통이나 홍보 혹은 조경적 장식성이 두드러지는 디자인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에 대해 비평적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당수의 공공미술 사업에서 드러나고 있는 반복적 한계나 관행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또한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동시대 예술 즉 컨템포러리 아트가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과연 대중을 위한 예술 혹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는지를 알아감으로써 단순한 표면적인 유희적 혹은 유익적 개념을 넘어 더욱 깊이 있는 “퍼블릭 아트” 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본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퍼블릭 아트 개념이나 이론들은 비평적 사고 및 폭넓은 사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하거나 살펴보는 인식에 도움이 될 것임.

④ 로우라인 기관 방문

- 일시 : 2018. 4. 20(금), 14:00~17:00
- 위치 : 140 Essex St, New York, NY 10002
- 목적 : 하이라인과 다른 개념의 도시재생 문화공간을 연수

〈 로우라인 개요〉

- 위치 :
 - ※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세계 최초의 지하공원 조성
 - 뉴욕의 변화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트롤리역을 활용하여 Lower East Side 지역의 재생프로젝트임
- 추진 주체 : NYC EDC(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 면 적 / 지하 깊이 : 4,046m² / 6.1m
 - ※ 한국의 자연 채광 기업(선포탈) 기술을 활용하여 지하에 공원조성
- 착 공: 2015년 1월 계획 발표하고 10월에 로라인 랩(Lowline Lab)이라 불리는 소규모 쇼 케이스 공간을 주말에 한정하여 오픈, 2016년 3월까지 45,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
- 준 공 : 2021년 Lowline Park 정식 오픈 예정



⑤ 윌리엄스버그지역 현장방문 및 워크샵

○ 일시 : 2018. 4. 21(토), 10:00~12:00

○ 위치 : Bedford Ave & North 10th street에서 시작하여

MaCarren Park 경유, Smorgarsburg 까지 가는 구간

○ 목적 : 문화와 예술이 접목되어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장 방문과
KANA(뉴욕예술인협회)와 함께하는 도시재생 워크샵 진행

〈 KANA 소개 〉

- 2012.3월에 설립된 뉴욕 한인 예술 인연 합
- 뉴욕시에 정식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예술 전 분야인
예술가, 디자이너, 웹프, 크리에이터들과
프로젝트 및 이벤트를 기획하고 강연 및 전시
특화된 행사를 제공하고 있음.
- 행사로는 Talk Talk Talk, Democracy prep,
Show your odor, Creative Nexus, Pop-up Events



〈 워크샵 개요 〉

- 뉴욕의 브루클린은 1990년대부터 빠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곳이며 특히, 윌리엄스버그와 부쉬윅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힘
- 이 두 곳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은 통상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징후인 상위
중산층이상의 유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젊은이와 중산계급 미혼 1인 가정의
유입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젊은 1인 가정 유입 인구들 중 대거 유입된 아티스트들이 모여 설립한
소규모 아트 갤러리 등이 예술가들의 집결지이자 공연, 전시예술의 거점이
되었음.
- 특히 갤러리 인근 도로에 보다 편안한 문화 예술 감상 취지의 벽화가 꾸며
지며, 하이 아트를 취급하는 맨해튼 소호의 부티크 갤러리와는 다른 새로운
브루클린만의 분위기가 형서되었음. 기존의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지던 그라피티가 벽화예술로 받아들여지며 브루클린의 분위기를
변모시킴.

⑥ 보스톤 재개발청(BPDA) 기관 방문 및 정책세미나

- 일시 : 2018. 4. 24(화), 10:00~16:00
- 위치 : 1 City Hall Square, Boston, MA 02201
- 목적 : 보스턴시 도시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한국 도시 재생사업 방향 논의

〈 보스톤 재개발청 개요 〉

- 설립 일 : 1957년
- 설립목적 : 보스턴의 개발자들, 사업가들과 협력하여 도시개발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
- 주요업무 : 도시 재개발 일자리 창출·사업중진·노동력 발전 방법 모색, 산업개발 등
- 홈페이지 : <http://www.bostonplans.org/>

〈 세미나 개요 〉

1. Boston Planning and Development Agency가 보스턴에서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계획과 공공이 참여하는 개발 사업 관리를 통해 주거 안정성, 일자리, 지역 커뮤니티 경제 등 도시가 당면한 현안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BPDA라는 기관의 설립 및 조직 특성과 연계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볼
 2. 보스턴 시가 운영하고 있는 Inclusionary Development Policy 그리고 Linkage와 같은 서민 주거 확보나 일자리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알아보고, BPDA가 주도하는 지역 도시 계획 사업(Community Planning) 또는 민간 개발 사업의 공공성의 과정(Article 80)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3. 케이스 스터디로서 보스턴 South End 지역 내에 주거, 상업, 산업, 의료 기관 등이 공존하는 해리슨 에버뉴 (Harrison Avenue)와 알바니 스트리트 (Albany Street) 으로 규정되는 지역의 재개발 압력을 지역 주민 및 지역의 경제 주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미래를 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및 경제 환경을 위한 방향으로 풀어나간 Harrison Albany Corridor Strategic Plan 계획 및 이를 토대로 지난 6년간 진행된 다양한 개발사업 사례를 알아볼
- 해리슨 알바니 계획 (Harrison Albany Corridor Strategic Plan) 수립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어 과거의 저밀도 산업 시설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복합 용도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뉴욕 스트리트 이라는 불리는 지역을 방문, 수립된 계획이 공공과 민간개발 사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화 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해 볼

7] 뉴원저시 스톰 킹 아트센터 연찬 및 견학

- 일시 : 2018. 4. 25(수), 14:00~17:00
- 위치 : 1 Museum Rd, New Windsor, NY 12553
- 목적 :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연찬

< 스톰 킹 아트 센터 개요 >

- 설립 일 : 1960년
- 운영목적 : 현대미술품을 전시 및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방대한 자연경관 속에 위치하여 주로 대형 조각품을 위주로 운영되며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전시를 목표로 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를 지향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특별한 이벤트를 운영함. 대형 조각품의 보존 및 연구에 공헌하고자 함.
- 주요전시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예술가들展, Elaine Cameron-Weir展
- 특 징 : 미국 최대 규모의 야외전시장 중에 하나로 뉴욕시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100여개 이상의 대형 조각품을 보유하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stormking.org>



< 주요 워크샵 >

- 예술가들과의 대화 : 예술가, 비평가, 학자들과 시민이 함께 전시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워크샵
- Wanderings & Wonderings : 관람객들이 예술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예술가와 함께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창의적으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예술작품과 함께하는 공연 : 미국 최대 규모의 야외 전시장에서 예술작품들에 둘러싸여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다른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다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Moonlit Walking Tours : 전시장 운영시간 이후에 달빛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워킹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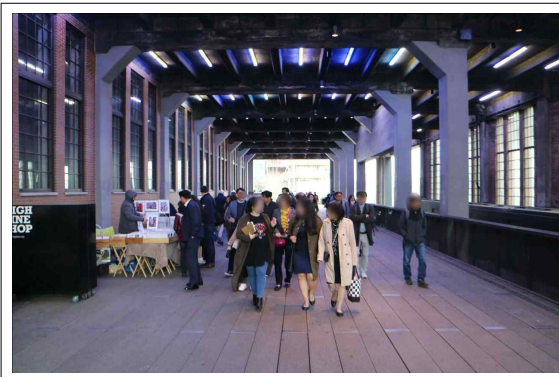
III. 연수내용 및 시사점 · 특이사항

《 1일차(4.18) – 새로운 만남에 설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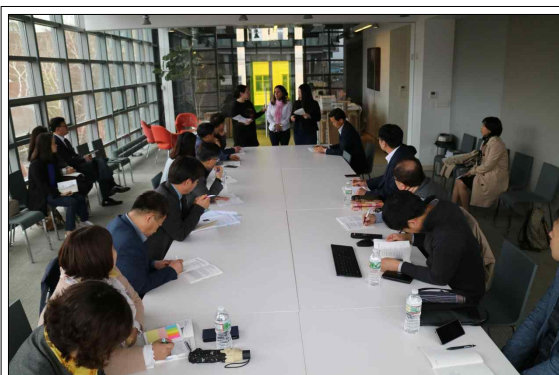
- 오후 4시 30분. 인천공항 제2터미널 H카운터에서의 첫미팅과 어색한 인사 그리고 14시간의 비행... 14시간을 뜯 눈으로 보낼만큼 새로운 만남에 설레었으나, 뉴욕공항 도착후 숙소가 너무 추워서(난방 안한다고함) 숙소에서도 잠을 설치 피곤하다.

《 2일차(4.19) – 뉴욕의 하이라인, 부럽다 기부문화여! 》

- 하이라인 현황
 - 길 이 : 2.33km²(직선형 공원)
 - 착공일 : 2006년 / 최초 개장일 : 2009. 6. 9.
 - 방문객 수 : 약 760만명(2015년 추산)
 - 추진사항
 - 2009년 1구역, 2011년 2구역, 2014년 3구역 공공 개방
 - 2018년 허드슨 야드 재개발지역 부근에 새로운 구역 개발 공사중



-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하이라인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 기관 방문 토론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하이라인이 도심 내에서 새로운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조되는 가치가 고가철도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효과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하여 법적소송에서 2002년 3월 보존론자측 승소 → High Line Park 탄생
-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은 하이라인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로 기부금 모금,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 공간 대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이라인 운영예산의 98%를 책임지고 있음.
- 하이라인은 뉴욕시 소유의 공공 공원이지만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은 뉴욕시 공원국과의 제휴로 하이라인 관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하이라인 1,2구역 건설을 위해 1,5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고 3구역 건설비용으로 사용된 350만 달러의 예산을 뉴욕시의 도움 없이 전체 모금하여 충당함으로써 독자 운영능력 보유

▷ 목포의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과 비교하여 폐선철도를 시민의 힘으로 공원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은 같으나 그 과정이 단순한 투쟁이 아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함.

< 목포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

- 연장 : 6.2km / 주제 : 자연+인간+문화공간 / 예산 : 265억
- 고속철도 지하건설도 폐선된 철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후 공원개발요구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 공원조성

▷ 기부금 문화가 발달한 미국이기에 뉴욕시의 일방적인 재정적 도움없이 자체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시와 현실 여건에 큰 차이는 있지만, 바람직한 주민주도 재생 및 의사 결정과정을 경험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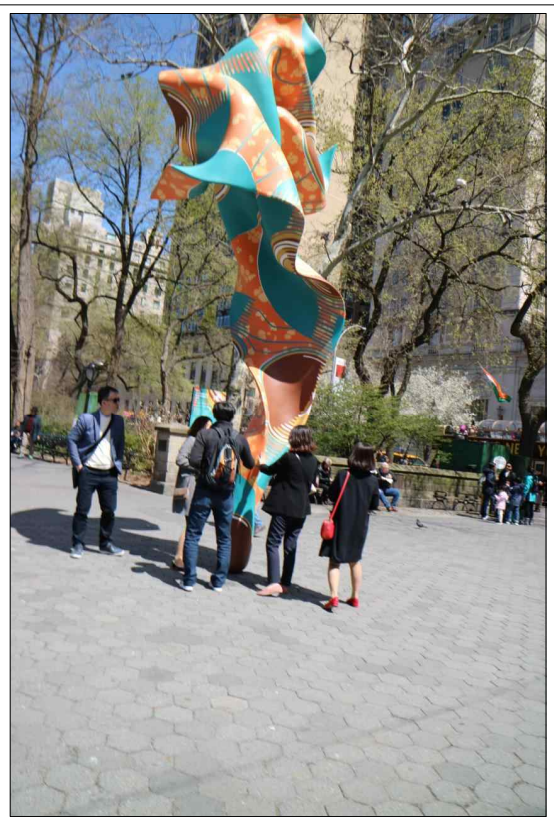
《 3일차(4.20) - 만져봤니 뉴욕의 공공미술을 》

- 워크숍 : 공공미술과 도시재생에 관한 강연
- 강 사 : 고진영(콜롬비아 미술교육 박사과정)
- 목 적 : 공공미술이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하고
예술을 도시재생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
- 내 용
 - 도시재생에서 동시대예술(Contemporary Art)의 역할과 동시대 예술이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강연내용에 다양한 공공미술사례를 준비하였으며, 특히 우리 연수단이 미국연수를 통해 방문하는 지역에 설치된 공공미술을 보여줌으로써 현장감 있는 강의가 진행되었음.
 - 아래 사진과 같이 뉴욕 센트럴파크에 설치된 잉카 쇼니바레의 작품을 먼저 학습 후 직접 현장에서 작품을 경험함으로써 도시재생에서 공공미술이 갖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목포시 도시재생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기회였음.



Yinka Shonibare MBE
Wind Sculpture (SG)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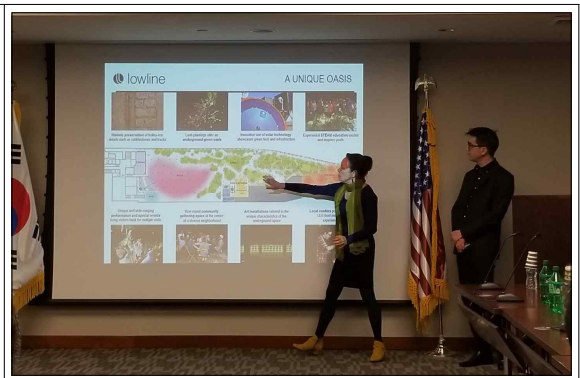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영향을 받아 네델란드에서 만든 직물이 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다층적인 정체성의 은유를 담은 더치와스 문양을 가진 거대 천의 형상으로 공공미술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인종, 서아프리카계라는 자신의 기원, 신체적 장애 등 때문에 패쇄적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공공영역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3일차(4.20) - 지하 인공 공원 로우라인 》

○ 로우라인 현황

- 뉴욕 변화가 지역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트롤리역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세계 최초의 지하공원 조성
 - ※ 한국의 자연 채광 기업(선포탈) 기술을 활용하여 지하에 공원 조성
- 면 적 / 지하 깊이 : 4,046 m² / 6.1m
- 추진주체 : NYC EDC(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 추진사항 및 이후계획
 - 착 공 : 2015. 1월 계획 발표, 10월에 로라인 랩이라 불리는 소규모 쇼 케이스 공간을 주말에 한정하여 오픈, 2016. 3월까지 45,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
 - 준 공 : 2021년 Lowline Park 정식 오픈 예정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공간 활용 구상, 기술 구현 능력, 실행과정 등 모든 점이 놀랍고 대단하다고 느껴졌지만 가장 최고는 역시 이러한 예산 확보를 기부를 통해 이루어냈다는 점임.
- 한국인 건축가가 로우라인 조성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햇빛을 지하로 보낼수 있는 자연채광 특허를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이 함께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으며, 2021년 준공이 되면 실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함.
- 로우라인 사례를 화순 탄광 등에 도입하는 방안과 자연채광을 바다속으로 보낼 수있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토의하고 고민해봄

《 4일차(4.21) - 윌리엄스버그, 지역이 브랜드가 되다 》

- 워크숍 : KANA(뉴욕 예술인 협회)
- 목 적 : 문화와 예술이 접목되어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장 방문
- 내 용
 - 뉴욕의 브루클린은 1990년대부터 빠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된 곳이며, 윌리엄스버그와 부쉬윅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사례로 꼽힘.
 - 이곳은 통상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징후인 상위 중산층 이상의 유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젊은이와 중산계급 미혼 1인 가정의 유입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윌리엄스버그를 방문한 날이 운 좋게 토요일 오후로 맥캐런 공원에 펼쳐진 토요장터(개인이 음식을 연구·개발하여 판매)를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며, 뉴요커들이 주말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예향의 도시 목포가 발전해 가야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목포시의 다양한 개발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5일차(4.22) - Met과 MoMA에 내가 있다니 》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Met)

-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
- 1866년 파리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회합에서 설립이 제안되어 1870년에 소규모로 개관
- 1880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으며, 기금을 통한 구입과 기증 등으로 현재 회화와 조각, 사진, 공예품 등 300여만 점 소장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특색은 그 소장 유물의 폭이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전 시대와 지역에 걸쳐있고, 국가나 정부 기관의 주도가 아닌 순수하게 민간이 주도하여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 뉴욕 현대미술관 (Museum of Modern Art, MoMA)

- 1929년 개관한 현대미술관은 미국의 부호인 록펠러 집안의 애비 앨드리치 록펠러와 그녀의 여성 친구 2명이 합작해 오픈
- 그림 외에도 회화, 조각, 일러스트, 영화, 사진, 미디어 등 다양한 종류의 19~20세기 근현대 예술 작품들을 모아 전시해 두고 있는데 그 양만 해도 약 15만점에 이릅니다.
- 현대미술관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으로는 앙리 루소의 '잠자는 집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모네의 '수련', 앤디 워홀의 '캠벨 스프 캉통',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피카소, 마티스 등의 작품들 또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 6일차(4.23) - 보스톤 도시개발 현장 》

○ 보스톤 도시개발 현장 구)해군기지 현장답사



- 미스틱강 해군선박조선소지역으로 조선업의 쇠락으로 침체된 지역이었으나 2007년까지 보스톤시에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게 되는데
-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협의를 통하여 재개발을 실시하였고, 철거된 거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 시킴으로서 지역이 상생하면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 사례를 볼 때(건물철거보다는 보존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 우리도 충분한 시간(개발시한을 두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두고 협의와 설득을 통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법 개정 등 건의를 통한 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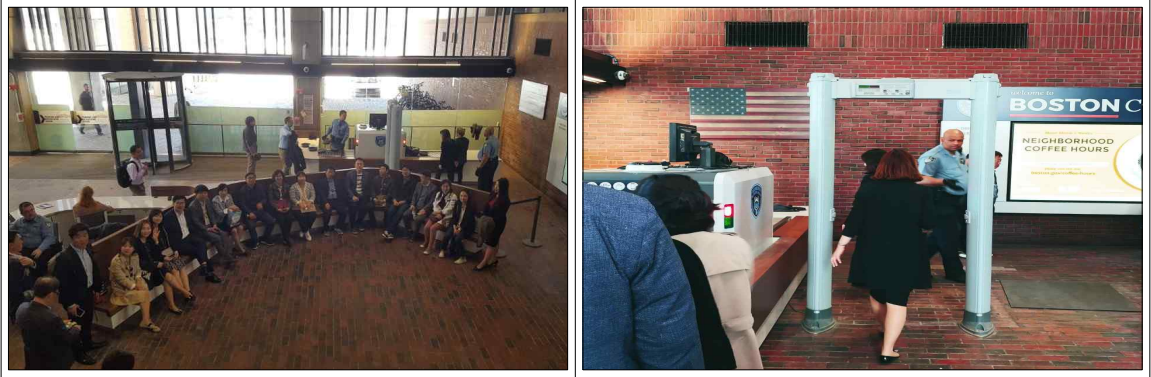
《 7일차(4.24) - 보스톤 재개발청을 가다 》

○ 보스톤 재개발청 현황

- 1957년 설립하여 보스톤의 개발자들, 사업가들과 협력하여 도시개발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
- 주요업무 : 도시 재개발, 일자리 창출·세입증진·노동력 발전 방법 모색, 산업개발 등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보스턴 시청 로비의 모습



- 보스턴 시청사의 경우 엄청 견고하게 지어져있는 모습과 청사 입구 중앙홀에서부터 금속탐지기등을 동원한 경비원들이 테러에 대비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테러위험국임을 느낄수 있었음
- 보스턴 시청에 근무하는 한국인의 설명을 들으며 로비에 걸려진 보스턴의 도시 변화를 알 수 있는 시대별 지도와 방 한 곳에 현재의 도시의 모습을 목재 모형으로 제작해놓은 모형도에 감탄
- 이 모형도는 건축허가 검토 시 건축 모형물을 배치해 봄으로써 주변 건물과의 조화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되며, 이 모형도 제작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있다고 함.
- 건축주도 이곳에 들러 건물의 모형으로 주변과 조화를 확인하고 건축을 한다고 하여 시민들과 재력가들의 생각이 깊어 지역이 발전한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도 생각의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는 기회였음.



- 정책세미나를 통해 보스턴 South End 지역 내에 주거, 상업, 산업, 의료기관 등이 공존하는 해리슨 에버뉴(Harrison Avenue)와 알바니 스트리트(Albany Street) 지역의 개발사업 사례 공부



- 해리슨 알바니 계획 수립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어 과거의 저밀도 산업 시설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복합 용도 지역으로 변화한 지역을 방문하여 계획이 현실화 되고 있는 사례 확인



-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오랫동안 보상협의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지역민들과 평소 유대가 좋아서 일부 주민반대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수렴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설득하고 요구사항 등 의견을 반영하여 해결점을 찾을때까지 사업착공을 미루고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 개발계획에 따른 시간과 예산에 쫓기는 우리나라의 재개발 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점이 특히 하였으나 앞으로 우리나라 재개발계획도 이와같이 시간과 예산에 쫓기지 않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통한 재개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8일차(4.25) - 빗속의 스톰 킹 아트센터 》

○ 스톰 킹 아트센터 현황

- 스톰 킹 아트센터의 설립을 주도한 사람은 옥덴(Ralph E Ogden)과 스톰(Peter Stern)으로 이들은 재벌은 아니고 알찬 중소기업을 운영한 지방 부호였다. 스톰 킹은 작은 부자도 큰 미술관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다. 면적으로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일 것임.
- 옥덴은 마운트빌에서 'Star Expansion Company'라는 쇠못 제조회사를 운영했으며, 1956년 옥덴은 돈은 충분히 벌었으니 이제부터는 돈 쓰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였고, 그는 사위 스톰을 불러들여 사업을 맡기고, 자신은 돈 쓰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그래서 시작한 일이 미술품 수집과 미술관 설립임.
- 설 립 일 : 1960년
- 운영목적 : 현대미술품을 전시 및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방대한 자연경관 속에 위치하여 주로 대형 조각품을 위주로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전시를 목표로 함.
- 특 징 : 미국 최대 규모의 야외전시장 중 하나로 100여개 이상의 대형 조각품 보유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1960년 개장한 아트센터는 5백 에이커(약61만평)의 구릉,

숲 그리고 들판에 가장 평판있는 현대 예술가들의 조각작품 100여점이 설치되어 있다.

- 부지가 워낙 넓어 서너시간을 쉬어가며 놀이삼아 천천히 돌아도 절반도 돌지 못할 정도로 넓어 실내 전시장까지 세세히 돌아 보려면 하루종일 돌아다녀야 할 듯 싶은데, 그 아름다움을 미처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 이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백남준 님의 ‘UFO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만나서 더욱 즐거웠으나 우리나라도 재력가들의 나라와 지역을 위하는 기부나 개발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 8일차(4.25) - 헤어짐이 아쉬운 연수단 간담회 》

- 뉴욕과 보스톤의 다양한 세미나, 워크숍, 기관방문 등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 연수였음.
-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잊지 못 할 연수를 만들어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 노고와 따뜻했던 우리 연수단에게 박수를 보내며,
- 이런 세미나를 통한 경험이 각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과 재개발 계획에 해외의 사례들이 검토되고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재개발 계획수립 및 추진시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우수한 사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 더 많은 직원들이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IV. 첨부자료

○ 현장방문, 세미나, 강의 사진

